

[러시아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러시아 식품가공 및 포장 산업 동향

식품 생산 및 가공 산업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 요소다.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동 중에도 소비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저장의 간편성과 포장식품의 저장기간 증가는 최근 소비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소매 형식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식품가공 산업 성장

러시아 식품 가공 산업은 1999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1999~2007년 동안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08~2016년 동안에는 연평균 2.3%의 성장률로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러시아연방 통계청(Rosstat)은 통계수집 방식을 변경해 식품, 음료, 담배에 대한 생산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식품 생산량은 5.6% 증가했고 음료 생산량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17년 식품 가공 업계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액(현재 가격 기준)은 5조 2,000억 루블(약 894억 달러)에 달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식품 가공 부문이 제조업의 13.5%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GDP 기준 2%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8번째로 큰 포장식품(2,750만 톤) 및 음료(260억 리터) 교역국이다. 2014년까지 러시아의 개인 소득의 증가는 보다 높은 생활수준과 양호한 소비 환경을 이끌어 냈다. 현재는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자 지출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기에도 급변하는 소비재(FMCG) 시장에서 식품 부문은 79%의 점유율로 가장 안정적인 세부 분야로 자리하고 있으며 포장 식품에 대한 수요는 2020년까지 2,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식품가공 및 포장 장비 시장 현황

지난 10년 동안 식품 가공 및 포장용 장비 수입은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수입산이 전체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총 생산 부문에서 1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및 식품 가공 산업은 30가지 이상의 세부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만 3,000개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재 및 포장 산업은 경쟁력 제고와 수입 감소를 상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로 러시아 식품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 확장될 것이라 전망되며 이에 가공 및 포장과 관련한 선진기술 부문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외국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고 소비재, 식품, 포장재 생산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특별한 니즈를 갖고 있다. VDMA 연구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에 수입된 식품 가공 및 포장 장비는 2017년 약 20억 달러에 달했다.

러시아 식품 생산 장비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에 민감한 편이다. Wynveen International BV(네덜란드), Nivoba BV(네덜란드), Meyn Food Processing Technology BV(네덜란드), Winkler und Dünnebier Süßwarenmaschinen GmbH(독일), Kraft Foods Deutschland Services GmbH & Co. KG(독일), Bühler AG(스위스), Ferrero SpA(이탈리아), Haarslev Industries A/S(덴마크), Franz Haas Waffelmaschinen GmbH(오스트리아) 등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있는 상황이다. 독일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식품 및 포장 기계 공급기업 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러시아의 포장재 시장은 금속(10%), 유리(12%), 연질 플라스틱(21%), 경질 플라스틱(21%), 종이 및 판지(36%)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의 6개 주요 지역(중부, 우랄, 시베리아, 북서부, 볼가, 남부 지역)에는 포장과 관련한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2,000개 이상이다. 포장기계의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된 기업은 약 900개 정도다. 러시아 식품 및 식품 가공 기업들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수입 기기를 선호한다. 가격대가 조금 낮거나 중고인 모델은 중소기업에서 구입하는 편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러시아-식품가공 및 포장, 2018.08.10.

<https://www.export.gov/article?id=Russia-Food-Processing-and-Packaging>